

‘국정농단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 씨에게 검찰과 특검이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합계 기소된 안중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여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 뇌물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 총수가 특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은밀하고 부도덕한 정경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 뿐 만 아니라 ‘안중범 수첩’과 통화 및 문자,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 물증으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최씨가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의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대에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40년 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은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정에 깊이 개입했고 사기업 자금을 이용해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운영하거나 친분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게 했다”며 “최씨는 재단 운영 권한을 독점하면서 사업을 지시했고 대통령을 통해 정부정책 및 해외

특검 “비선실세 탐욕·악용 사건 실체”

검찰 “박권한 이용해 헌법적 가치 훼손”

벌금 1185억원에 추징금도 77억 여원

순방과 연계·시행했음에도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근거없이 사실을 호도하고 실체를 왜곡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씨는 언론 보도 후 해외로 도피해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하고 안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 등과 통화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최씨는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이익 귀속 주체인 데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사법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에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

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지난 2월 수사를 종료한 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도록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최씨는 국회 국정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뉴스



한파에 얼어붙은 계곡. 올 겨울들어 가장 한파를 보인 14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 계곡의 자운폭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했던 장시호씨가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리얼미터가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찬성한다는

57.0%,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29.3%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7%였다.

모든 지역에서 ‘범죄수사 도움 찬성’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광주·전라(59.9%)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경남·울산(58.8%), 서울(57.3%), 대전·충청·세종(56.5%), 경기·인천(54.7%), 대구·경북(53.8%)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70.0%), 30대(69.2%), 20대(57.7%), 50대(51.1%), 60대 이상(41.8%) 등의 순으로 ‘범죄수사 도움 찬성’이 높았다.

성별로는 ‘범죄수사 도움 찬성’ 응답이 남녀 모두에서 우세한 가운데 남성(60.2%)이 여성(53.8%)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4.8%로 나타났다.

뉴스

캐나다 서부서 소형 여객기 추락...수명 부상

캐나다 서부에서 승객 22명과 승무원 3명을 태우고 비행하던 소형 여객기가 추락했다고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CIV에 따르면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폰듀락(폰두락)에서 공항을 이륙한 ATR 42 여객기가 전날 오후 6시14분께 떨어져 수 명이 다쳤다.

ATR 42 사고기는 이륙한 직후에 폰듀락 공항에서 1km 채 안 되는 곳에 추락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생겼다는 보도와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ATR-41는 서스캐톤에 본사를 둔 웨스트 윈드 항공 소속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日해안에 또 北북선...백골화 시신 2구

일본 해안에서 북한에서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되는 북조선이 또 발견됐다. 북조선 내부에는 일부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 2구가 발견됐는데, 이 중 1명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초상화 배지를 달고 있었다.

14일 NHK보도에 의하면, 혼슈(本州) 북부 아키타(秋田)현 기타카미(湯上)시의 한 해안에서 지난 12일 오후 북조선이 1척이 진북된 채 발견됐다. 이에 현지 경찰 및 해상보안부가 13일 선체를 조사한 결과, 일부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1명은 상의 왼쪽 가슴 부분에 김정일 초상화가 남아있는 배지를 달고 있었다.

경찰 및 해상보안부는 북조선이 북한을 출항한 뒤 떠밀려온 것으로 보고 2명의 신원 및 신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13일 오후 1시 반께 아키타 시의 또 다른 해안에서도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 중인 가운데 이 남성의 바지 주머니에서 한글이 적힌 종이 발견된 것을 볼 때 북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들어 동해쪽 일본 해역 및 해안에서는 북한에서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되는 북조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아키타현에서 13일 아키타시에서 2척, 오기(男鹿)시에서 1척이 발견됐다.

한편 일본에서는 올 한해 북한에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북조선이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83건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서 일본으로 떠밀려온 북조선은 지난 2013년에는 한해 동안 80건이 확인됐지만, 그 이후로는 연 평균 40~60건 사이로 집계됐고, 올해는 최다를 기록했다.

83건 중 대부분은 선체만 떠밀려왔지만, 이 가운데 5척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으며 총 42명으로 확인됐다. 시신이 확인된 사례는 6건이다.

일본 해역에 북한 북조선 표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무리하게 어선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부근까지 진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향후에도 북한 북선의 유입과 표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美 사우스다코타주 커스터 산불 급확산

미 사우스 다코타주의 인기높은 커스터 국립공원에서 13일(현지시간) 이틀전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인근 마을과 주택지 주민들이 대피 중에 있다.

커스터 국립공원은 주 남부의 러시모어산 국립기념물 지역 바로 남쪽에 위치해있으며 11일 발생해 다음날 16km였던 산불 면적이 13일에는 142km로 급속히 늘어났다. 13일 현재 진화 면적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고 공원 관리들은 말했다.

이 국립공원의 탐방 프로그램 담당자인 보키 스틸더는 “소방대원들도 이런 산불은 10년~20년만에 처음 본다”고 말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산불을 한 여름 산불과 비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직 불길로 인한 부상자는 없으며 공원 울타리와 외곽 건물들만 불났고 공원관리소 메인 빌딩과 인기있는 수영용 숙박시설은 불길을 막는데 성공했다. 건물 주위의 수목을 미리 제거해 불이 옮겨붙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번 산불로 공원 동쪽에 있는 페어번, 버팔로 잭 마을이 위태로 처하게 돼 약 200가구의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거나 이미 대피했다고 커스터 카운티 비상대책본부의 마이크 카터소장은 말했다.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스포츠**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